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裵 東 守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1989年度 第20次 定期總會

創立20年의 成年을 맞아 會勢 伸張과 団合 誇示

代議員 108名 參席코 盛況裡 終了

※우리들은 農産物 수입 開放에 對處한 임기응변적인 지혜를 모아 이를 슬기롭게 克服해 나가야 한다.

◇第20次 정기총회 광경(89.3.31)

協會는 지난 3月31日 內빈들을 모신 가운데 협회創立總會이후 元老任員과 20번째로 맞는 定期總會를 성황리에 매듭지었다. 今般總會는 例年 級分所長 및 各 산하 과는 달리 農産物全面수입 開放이라는 周邊여론의 위기의식 때문인지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으나 宋景太會長의 其間에 있었던 當局과의 협의 過程과 結果를 소상히 說明받고 또한 집행부 사업계획서上의 追加 해명을 들은후부터는 점차 진취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會議는 예정시간 보다 빠르게 進行되었다.

이날 총회는 짜여진 順序에 따라 먼저 기각동 組織擴充과 生産指導및 系統出荷에 기여도가 많았던 分所長 12名에 對한 표창패 수여식이 있은후 (3面참조) 宋會長은 20차총회에 즈음한 그의 人事말에서 20年이면 江山이 두번씩이나 변하는 世月동안 주변의 비판과 기우등 많은 우여곡절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기반을 다져온 協會는 名實相符한 生藥生産團體로서의 內實을 더욱 確固히 하여 生藥業界에 其 영향력을 크게 미치도록 하자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最近 한약재 全面수입開放이라는 근거모호한 여론이 나돌아 生産會員의 士氣가 相當히 위축된 분위기라고 傳해지고 있으나 이는 本報 3月號 2面에 關係當局의 示達文에 소상히 밝혀져 있음으로 우리는 이를 信賴하고, 이와같은 어려운때일수록 時代的 흐름에 잘 적응하면서 임기응변하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昨年 19次定總에서 委任처리된 新規任員團의 選任과 理事會構成問題는 參席한 任員 17名에 對한(不參 6名) 個人人事소개가 있은후 萬場一致로 이를 追認 의결하였다.

※理事會構成名單은 다음과 같다.

△理事 송경태(會長) △理事 임연학(副會長) △理事 박만종(제7代會長) △理事 배명철(제5代會長) △理事 김동균(제주도지부장) △理事 이화익(전북도지부장) △理事 이종철(충북도지부장) △理事 문대규(충남도지부장) △理事 김정만(경남도지부장) △理事 박길부(부산직할시지부장) △理事 김용한(중앙본부업무담당) △理事 황인구(원주시사무소장) △理事 이웅황(여주군사무소장) △理事 전만택(안평구중앙회원) △理事 김창한(화양군사무소장) △감사 박영임(철원군사무소장) △감사 류복규(영주시사무소장) △理事 박재룬(부회장) △理事 이옥용(중앙본부) △理事 민종권(전남나주) △理事 신영달(경북영천) △理事 서종활(대구직할시) △理事 박재운(경북안동) 이상 理事 21名 감사 2名

이어 朴永任 本會監事는 88年度 收支決算 감사보고를 通하여 小額이나마 매년 赤字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點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나 中央共販場 운영실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協會死活은 여기에 비중을 둘수 밖에 없으니 現집행부는 창의와 지혜를 다하여 共販場活性化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이날 議決通過된 主要案件은 다음과 같다.

①88年度 事業實績·教育實績·地域別生産現況·會員確保現況등이 各級分事務所別 報告不誠實로 所期의 成果및 전파業務에 미흡하였다는 說明과 報告철저이행을 다짐한후 原案대로 承認하였다.

②88年度 收支決産報告·朴永任監事의 監査結果報告를 들은후 이를 承認하므로서 원안대로 承認하였다.

③89年度 事業計劃書·協會5大기능에 의한 9個事業方針에 따라 細部項目別 說明이 있은후 綜合審議를 거쳐 原案대로 承認하였다.

④89年度 收·支豫算編成·協會事務局의 豫算은 작년수준에 東結한 5천2백만원선. 中央共販場은 작년보다 30%增額된 5천1백만원선의 編成事由를 說明들은후 綜合審議를 거쳐 別異議없이 原案대로 承認하였다.

이로서 영세하고도 단조로운 團體이긴 하지만 今年에도 겸허하고 건전한 順航이 계속될것으로 展望된다. (편집부제공)

連載 韓方순례 〉5〈

소위 관상술이라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의 인상(人相), 체상(體相), 두상(頭相), 습상(習相), 수상(手相) 등을 보고 운명을 점쳐주는 술법이다. 만일 무기력하고 창백한 얼굴을한 자가 관상가 앞에 섰을때 내릴 음험한 선고 외에 장기의 장애를 고치면 그러한 쇠운(衰運) 적인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점쳐주는 자가 몇이나 될까? 흥미있는 문제다.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이 알콜의 기운을 빌어위가 불어나 원기가 상승하면 담이 커져서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는 알콜의 힘으로 당장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져서 정신상태도 크게 신장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다가 알콜의 성분이 소멸되면 동시에 기도 하강하며 일시적이었던 대담성도 드디어 물거품처럼 사라져 원상태로 되돌아가 잔잔해진다.

내장의 허약상태를 고치고 강장케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술을 먹었을때의 그 대담성까지(적어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일시적으로 술을 먹고 우울한 것을 벗어버리는 상황치는 악순환의 반복 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된다. 그렇다면 내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부터 치유할 일이다. 선도(仙道)의 건강법의하나인 복식호흡법도 중요하고 각 장기를 양생시키는 식품이나 한방적인 보약등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적당한 운동을 통한 내장기의 강화훈련도 우리는 소홀히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경시되기 쉬운 맨손체조는 근육의 윤활성만을 돕는 것이 아니고 혈액순환과 기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모든 장기를 강장케 하는 큰 효과가 있다.

동양고대의 무술인 쿵후나 태권도 등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갖추는 기본자세(태권도의 경우는 기마자세) 등 여러가지 동작은 내장기의 강화훈련으로써 권장할만한 것이다.

건강의 요소는 입체적인데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근에 각 지역별로 조기회가 성행하여 아무리도 시의 한복판이라도 공기의 오염도가 가장 낮은 아침 공기를 만끽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인 기능의 향상뿐 론 정신위생면에서도 아주 첫째 바람직한 현상이다. 봄의 생동하는 기를 인체의 생동하는 기에 순응시킬 때, 즉 선도에서 말하듯이 대기 속의 정기를 마음껏 흡수하여 이를 복기법(腹氣法)을 통해 체내에 받아들여 유감화(有感化)—일체의 에너지로 환원시킨다는 뜻) 시킬때 우리의 건강은 일일증상(日昇上)할 것이다.

직장을 가진 도시의 소시민은 출근시간에 쫓기고 콩나물시루 같은 통근버스에서 시달린다. 직장은 유쾌하기보다는 짜증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스트레스(외부자극 공포증)에 빠져이 스트레스를 술 한잔에 호소한다.

술이 들어가면 앞서 술했듯이 모두 내 세상이고 모든 장기는 알콜의 배제와 함께 휴식해야할 모든 장기는 본만이 가시는 듯하나 그러다보면 흔히 시간에 쫓기고 강하다고 호언한다. 때로는 어떤 예증을 예고하면 「옛날에는 이 정도의 술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나이탓인가 보다」하고 스스로 건강유지의 투쟁에서 패배를 자인해 버린다.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는데 예방적인 의학의 뜻이 있다. 내장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내장 활력의 성쇠에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다음호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산을 하는 정도로 이축적되는 피로가 풀릴 수 있을까? 내장기는 불수의근이고 결정적인 변증현상이 아니면 쇠약정도로는 강력하게 자기의 상태를 예고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그래도 자기는건강하다고 호언한다. 때로는 어떤 예증을 예고하면 「옛날에는 이 정도의 술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나이탓인가 보다」하고 스스로 건강유지의 투쟁에서 패배를 자인해 버린다.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는데 예방적인 의학의 뜻이 있다. 내장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내장 활력의 성쇠에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다음호 계속〉